

배포 2026. 5. 28.(목) 16:00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매입임대

반지하주택 대상 특별안전점검 실시

- 매입임대 반지하주택 차수판·침수경보장치 등 작동상태 집중 점검
- 입주민 침수대응 사전교육 및 집중호수 발생시 긴급 대피체계 가동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매입임대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‘침수방지시설 특별안전점검’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.
 - 이번 점검은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 위험성이 높은 저지대 주택의 상시 방재 태세를 확립해 주거 취약 가구의 인명·재산 피해를 차단하고자 실시됐다.
 - 점검은 상습침수 우려지역인 서울 상계동 중랑천 인근 매입임대주택에서 진행됐다. 세대 현관과 창문 등에 설치된 차수판, 침수경보장치, 배수펌프, 외벽 방범용 방충망, 역류방지장치 등 핵심 침수 방지 시설의 작동상태와 보관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.
- 이날 현장점검을 주관한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“올여름에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,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침수방지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”라며 “반지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- 한편, LH는 지난 ‘23년 침수 우려가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 주택*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마쳤으며, 지상층으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‘주거상향 사업’도 지속 시행 중이다. LH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침수 발생 시 대피요령 등 사전교육을 지속 실시하고, 관할 통장 및 관리소와 긴밀히 협력해 긴급 대피체계도 운영할 방침이다.

* '04년 매입임대 사업 초기 단계 취득한 반지하 세대로, 입주자 주거 안전 등을 이유로 '20년부터 반지하 공급 중단

담당부서	임대자산관리처	책임자	팀 장	신성일	(055-922-4244)
		담당자	차 장	이명행	(055-922-4274)